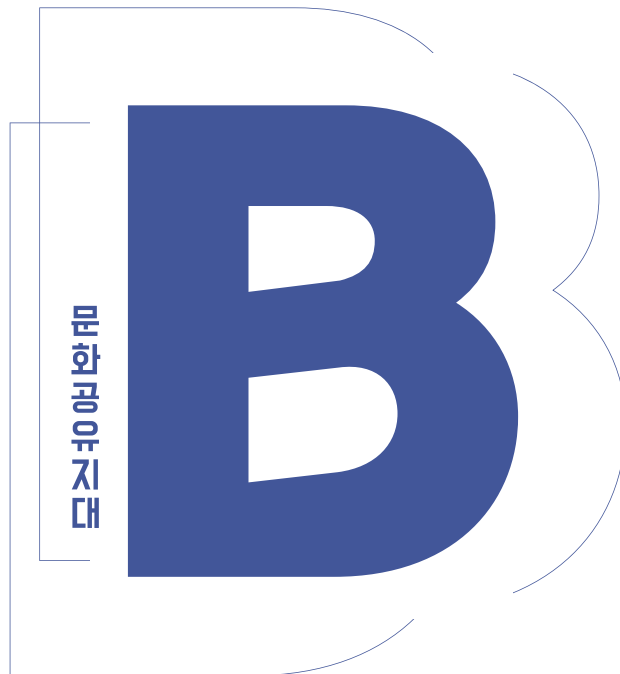


B LIVE MAGAZINE



VOLUME 1

CONTENTS

6

문화공유지대 소개

문화도시부평 · 문화도시부천 소개
문화공유지대의 시작을 묻다 - 최정환PM

10

B LIVE ZONE 아트월 오픈닝 행사

'당신의 예술은 어떤 모양인가요?' - 김한솔이 대표
MINI INTERVIEW 마성영 작가

22

20211212 라이브 공연 취재

#1. 거문고 자리 <터전_생의 노래>
#2. 김태연 & 이뿌리 <경계를 허물다>
#3. 창작집단 유리 <어디 있어요?>

40

기획기사 - 예술가와 시민포럼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 우리만의 공유지대를 그리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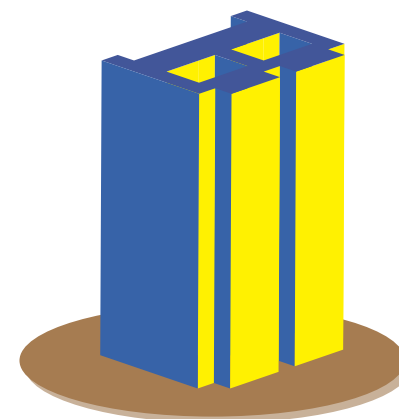
지역 예술가 N문 N답

첫 번째 문화공유지대 참여 예술가에게 묻다.

54

SELF INTERVIEW

문화공유지대 참여 예술가를 소개하다





B LIVE MAGAZINE은 2021년 12월 12일
 <문화공유지대>의 첫 번째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 제작된 프로젝트 매거진입니다.

Editor's Letter

부평과 부천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저희’ 또는 ‘우리’의 단어들
 이 미묘한 거리감을 불러왔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정서적으로 먼 두 도시. 누군가는 쌍
 동이 같지만 둘의 모습은 티격태격 경쟁하며 자라는 연년생 형제에 가까웠다. 지하철 노선,
 지역번호, 한자 부(富), 공원, 인프라 등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두
 도시가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왜 해야 할까. 우리는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각
 자의 의문을 품은 의미 없는 시간이 흘렀다.

생각을 뒤집을 차례였다.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반대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보면 어떨
 까.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부터 마주쳐 보자. 그렇게 경계를 넘
 나드는 작은 통로가 만들어졌다. <문화공유지대>는 자발적 공유의 시작점이다. ‘무경계’라는
 주제로 두 도시의 예술가들은 장르를 허물고, 마음의 벽을 무너트리는 협업을 선보였다. 정돈
 된 답을 말하기보다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냈다.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도시가 앞으
 로 나아가야 할 길을 무대 위로 꺼내 관객에게 던졌다.

B LIVE MAGAZINE은 부평과 부천의 첫 번째 <문화공유지대>의 소란스런 하루를 고스란히
 그려냈다. 정제되고 편집된 기억이 아닌 있는 힘껏 부딪히며 떨어진 날 것의 마음을 기록했다.
 거리감을 불러왔던 ‘우리’는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통로를
 통해 미뤄둔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한다.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김한솔이 작가 & 김효섭 편집장

문화공유지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립 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화된 예술교육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부평구민의 문화와 여가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부평구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로 삶을 충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권으로 확장되길

부평과 부천은 도시 경계가 인접하고 통합 인구가 130만 명에 이르지만 다양한 문화적 교류는 단절 되어있습니다. 두 지역 간 시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확장하기 위해 양 도시의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과 상상으로 문화공유지대를 상징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평과 부천의 문화공유지대가 열렸습니다.

문화도시부평

말할 수 있는 도시, 귀 담아듣는 도시

2001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부천문화재단이 탄생했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 12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은 사람이 자원인 도시, 시민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향해 계속 도전하는 중입니다.

양 문화도시의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

<부부프로젝트 문화공유지대>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두 도시 부천과 부평이 협력하여 상호 도시의 문화예술적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기획된 도시 간 협력사업입니다. 부천과 부평 예술가들의 상상과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문화 공유지대'를 탐색하고, 공유지에 대한 아이디어 상상 워크숍을 진행하여 <부부프로젝트 문화공유지대> 프로젝트가 탄생되었습니다. 문화공유지대를 계기로, 서로 인접한 문화도시 부천과 부평에서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도시부천

문화 공유 지대의 시작을 묻다

<문화공유지대>는 어떻게 기획되었나요?

부평과 부천의 130만 인구를 기반으로 하나의 문화 도시권을 형성하여 지역 선순환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020년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앞서는 부천과 논의하여 두 도시의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의 도시를 교차 방문하여 문화공간과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를 토대로 두 도시의 경계부에 <문화공유지대>를 상상했고, 이를 팝업의 공유 공간 형태로 가시화시켜 나가보자는 실천적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두 도시의 예술가들이 부평과 부천 사이의 '선'과 '경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결합과 얹매이지 않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도시의 물리적, 행정적 경계를 뛰어넘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기반으로 문화 예술적 소통과 교류를 이루어나가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팝업 공간을 제작하는 업체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부평 청소년수련관의 실내 공간으로 옮기게 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앞으로의 <문화공유지대>는 두 도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 마을형태로 구현되는 경험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정환 PM

“130만 시민들이 뒷받침하는 하나의 문화도시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공유지대>를 통해 그 기폭제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문화공유지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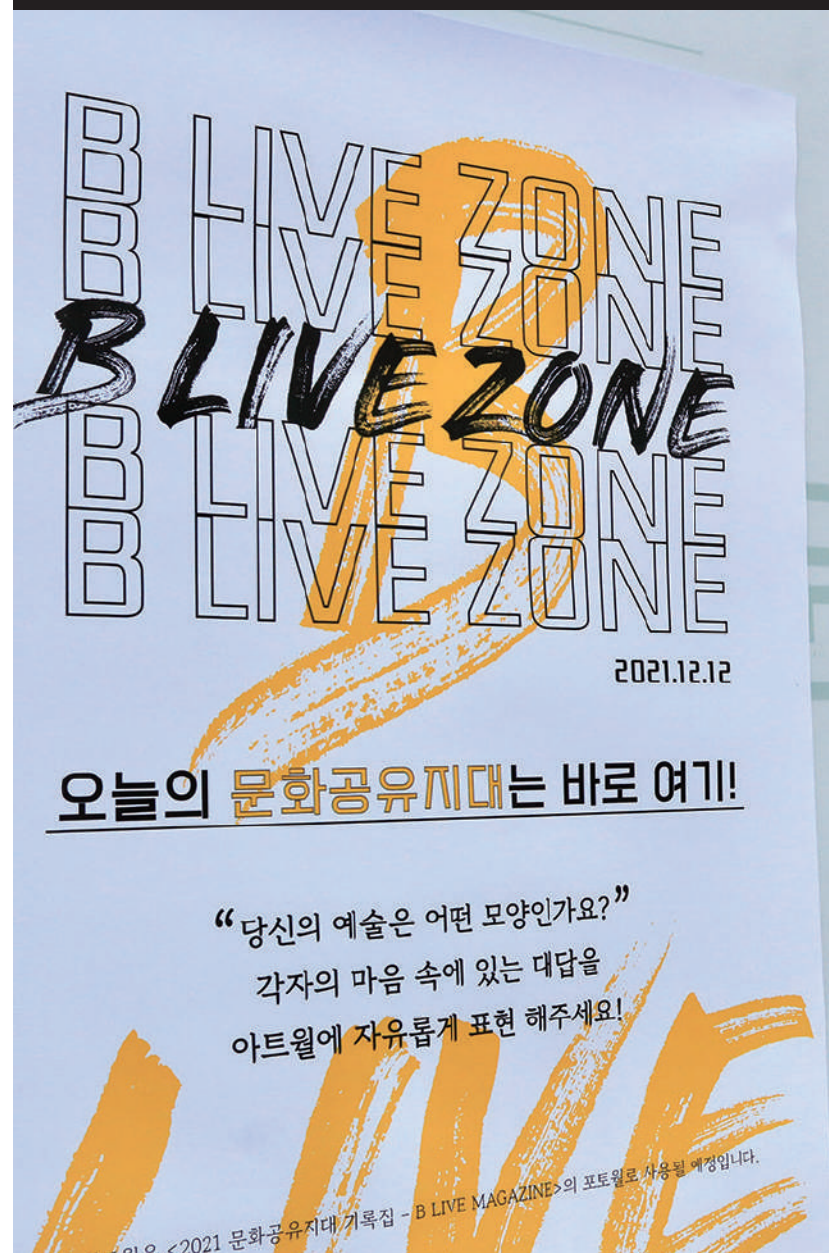
사람의 측면에서는 예술가들과 시민의 성장에 맞게 과정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의 경계를 넘어 문화 공유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간과 장소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활동으로 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을 위한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상상은 형식의 파괴를 수반합니다.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을 보장해주는 과정이 함께 설계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문화공유지대> 행사를 함께 진행했던 모든 분에게 한 마디 남겨주세요.

프랑스 68혁명에서 '상상력에 권력을' 슬로건이 내걸렸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에 의해 변화와 혁신의 단초가 마련될 겁니다. 상상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고 경계 없는 상상을 통해 경계 없는 두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상과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재미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능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경제적 고민, 활동 인프라 부족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공간,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겠지요. 지역에서 머물고 서식하면서 삶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평과 부천이 동시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실무자 중심의 활동 체계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극대화해내야 합니다. 부부프로젝트의 성공도 두 도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B LIVE ZONE

아트월 퍼포먼스 B LIVE ZONE
기획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그림 작가 마성영(마브로)

부평과 부천의 첫 번째 <문화공유지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트 퍼포먼스가 부평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펼쳐졌다. 매서운 겨울 추위로 어깨는 움츠러들었지만 '당신의 예술은 어떤 모양인가요?'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을 적는 예술가들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다. 하얀 여백의 큰 캔버스가 빠르게 채워질 때마다 두 도시 예술가들의 에너지도 더불어 채워졌다. 문화공유지대가 묻고 예술가들이 답하는 즉흥 협업 프로젝트 'B LIVE ZONE'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김한솔이 대표에게 물었다.

B LIVE ZONE 아트월 퍼포먼스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문화공유지대>의 시작을 알리는 예술가들의 즉흥 협업 프로젝트예요. 부평과 부천의 예술가들이 함께 힘을 맞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오늘은 경계가 사라졌다. 그러니 함께 즐기자!'라는 오프닝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추운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정말 즐거웠어요.

여백을 자유롭게 채우는 단순한 아트월 작업이 아닌 “당신의 예술은 어떤 모양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예술가들이 각자의 답변을 그려냈는데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도시 협업 행사다보니 참여 예술가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지역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각자의 예술을 고민해보는 질문을 중심에 두었어요. 다양하게 적힌 답변을 통해 우리들을 단순히 지역으로 나눌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예술가들의 고유한 생각과 반짝이는 마음을 담아보고 싶기도 했어요. 경계심을 풀기 위한 위밍업으로 준비했는데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화공유지대> 오프닝 즉흥 협업 프로젝트를 끝내고 문화도시부천, 문화도시부평, 참여 예술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아트월 퍼포먼스 자체로도 의미가 충분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는 <문화공유지대> 행사 기록집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예측 가능한 진부한 기록집 말고 예술가들의 재기발랄함과 생생함을 담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현장감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즉흥 협업으로 만든 아트월을 배경으로 활용해 예술가들을 촬영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행사 장소가 급하게 변경되어 공연장과 거리가 먼 야외에 별도로 설치되었어요. 의도만큼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문화공유지대>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평과 부천에 이렇게 멋진 예술가가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더 알아가고 싶고, 함께 무언가 만들어가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자신이 잘하는 주종목을 발표하기보다는 예술의 장르를 뛰어넘어 시도 자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예술 영역을 확장해가면 분명 멋진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스러운 디자인팀」케이툰 연재

「절교여행」성영복스 출판

마성영 작가 MINI INTERVIEW

「당신의 예술은 어떤 모양인가요?」 슬로건을 그려낸 이는 재치 있는 웹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가 마성영(마브로)이다. <문화공유지대>의 오프닝 쇼의 시작점을 맡은 그를 만나보았다.

아트월 퍼포먼스가 실시간 현장 작업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항상 디지털 작업을 하니 직접 붓으로 글씨를 쓰고 색칠을 하는 즉흥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작업을 망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ctrl+z 버튼이 간절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즐겁게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신 예술가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성영 작가님의 예술은 어떤 모양일까요?

사각형의 방에서 사각 모니터, 사각 액정 태블릿, 사각 키보드로 작업을 해요. 또 네모난 컵 안에 만화를 그리고 사각형의 스마트폰 또는 책으로 독자를 만나는 제 예술의 모양은 사각형이 아닐까요?

부평과 부천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현준 교수님의 '3차선 법칙'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도가 3차선 이하면 보행자의 흐름이 이어지지만 4차선 이상이 되면 보행자 흐름이 단절된다는 법칙인데요. 부평과 부천은 왕복 10차선 넘게 이어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도시와 도시 사

이를 절단시키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음에도 다른 동네로 느껴집니다.

부평구민 입장에서 상동 호수공원, 한국만화박물관, 웅진플레이도시는 비교적 가깝고 친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이들 시설이 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때문에 부평과 부천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앞 연남동과 공덕동이 지하철 3개 역 정도로 떨어진 거리임에도 '경의선숲길'로 이어져 일종의 '같은 동네 사람'이 됐듯이 부평과 부천 사람들이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한국만화박물관과 상동 호수공원 사이의 육교를 '서울로 7017' 같은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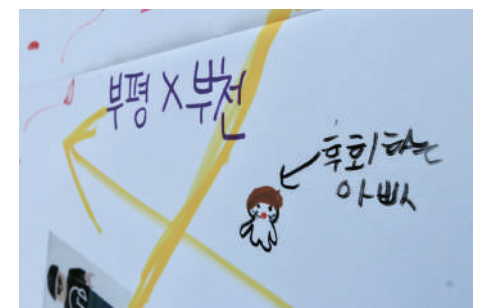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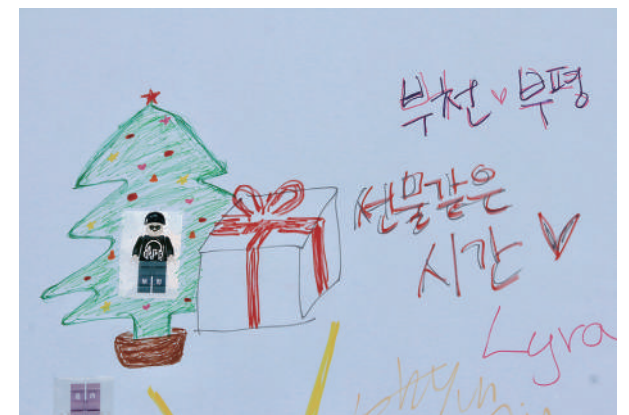
다음 <문화공유지대>에서 해보고 싶으신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부평과 부천 예술가분들이 몸담고 계신 분야가 다양해서 놀랐어요.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이시더라고요. 유달리 내성적이라 내색은 못 했지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만화가분들과 릴레이 만화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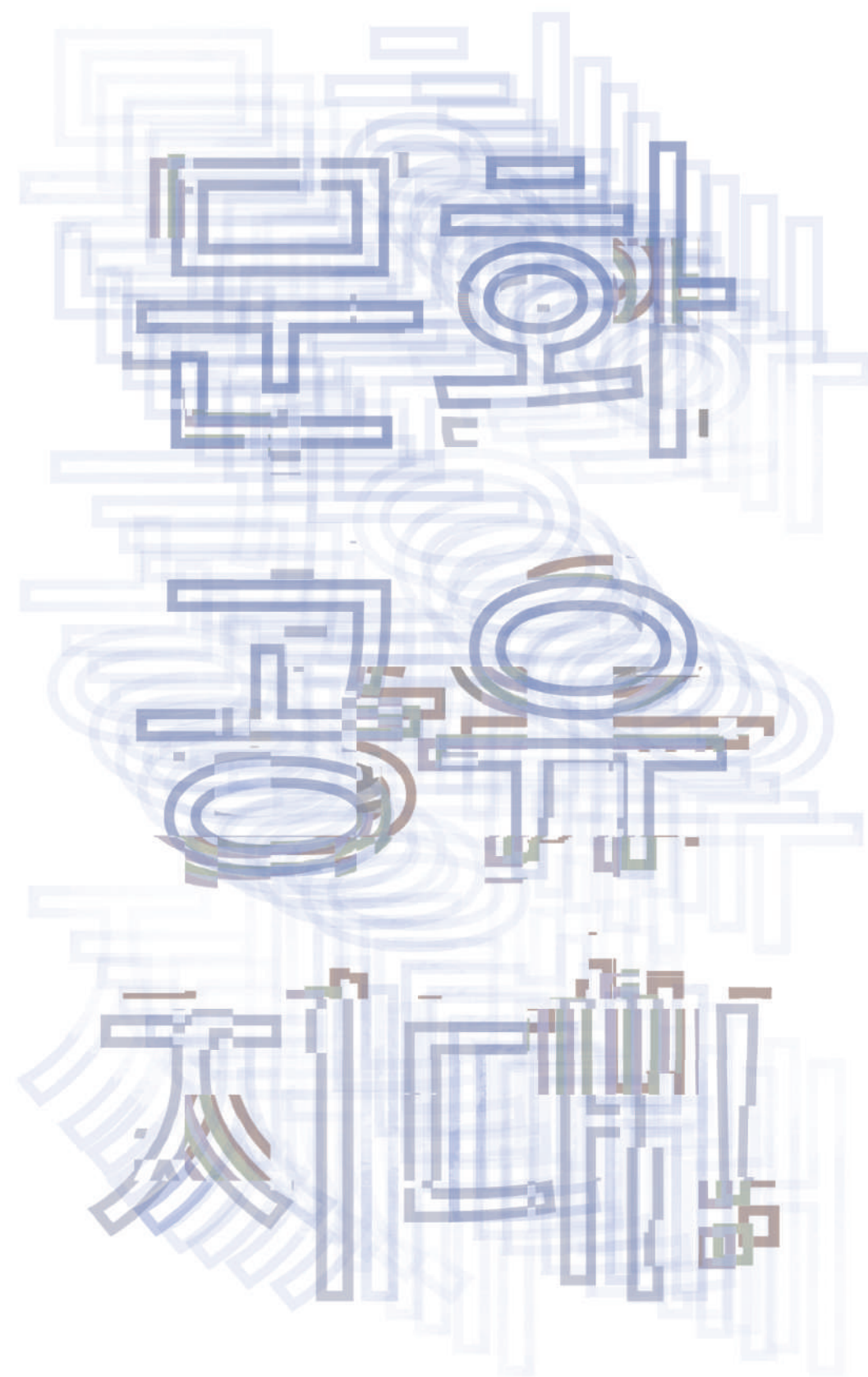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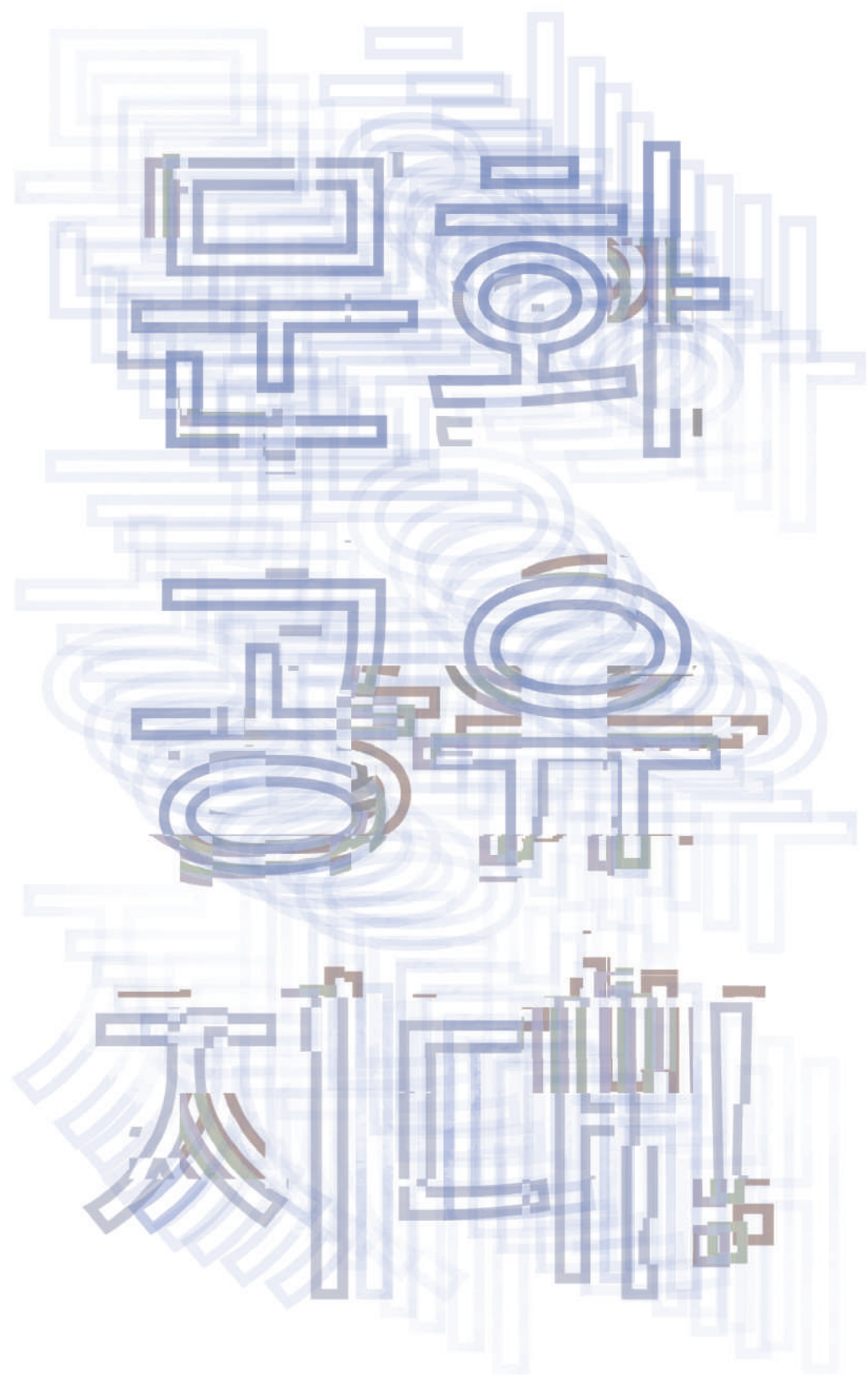
“당신의 예술은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의 문화공유지대는 바로 여기!
문화공유지대가 묻고 모두가 답한다!



부평과 부천이 만나면





문화 경계가 사라지다

부산광역시 문화공유지대

부산과 부평의 문화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문화공유지대

#1

거문고자리 〈터전-생의 노래〉

거문고연주 김은선, 최예지
사운드디자인 주재민
춤 문혜진, 최희수, 이다정
미디어아트 허이나
설치미술 김준완, 최윤서





국악의 전통성에 독창성을 결합해 눈과 귀를 사로잡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기리는 오늘과 가장 어울리는 공연이 아니었을까. 익히 듣고 보았던 전통 공연을 떠올렸던 관객들은 ‘거문고자리’팀의 연주가 시작되자 그저 놀랄 뿐이었다. 문학, 민요, 신화 등을 접목시킨 것도 모자라 거문고 병창, 왁킹, 텃팅과 같은 스트리트 댄스와 협연을 통해 전통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는 밀도 있는 공연을 완성시켰다. 짙은 여운을 선사한 ‘거문고자리’의 김은선 예술가와 농밀한 대화를 나눠 보았다.



<문화공유지대>에서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셨어요. '터전_생의 노래' 작품이 품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부평과 부천 지역의 공장 지대의 노동력, 그 땀과 열정으로 이뤄지는 생산품의 과거를 담아 그 시절 활발하고 치열했던 장면을 예술가의 시선을 담아 표현해 봤습니다. 공장지대에서 들리는 기계음을 베이스로 '거문고자리'의 곡을 엮어 나가며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소리의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또 사이드에 장승처럼 설치된 오브제 또한 공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속물을 결합해 소리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고, 터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나타냈어요. 미디어아트, 댄서, 현대 미술, 거문고 연주, 사운드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모여서 장르의 융합과 무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힘썼어요.

지역 예술가의 시를 노래로 바꾸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 예술을 공연으로 재해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부천에 거주하지만 실제 활동은 서울에 포커스를 맞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부천이 낯설게 하숙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속에서 소재를 찾아 작품 활동을 하며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 애착을 갖고 싶었어요. 그 시작점이 변영로 시인의 시 「논개」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고, 감사하게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예술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더욱 지역의 숨겨진 보석 같은 소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국악은 대중들에게 낯선 장르예요. 특히 거문고라는 악기는 더 매니악하고요. 거문고 주자로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요. 더 많은 관객이 거문고의 매력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평과 부천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질은 지키되 자연스럽게 융화하는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평과 부천의 특화된 장점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협력을 하다 보면, 경계가 점차 무경계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화공유지대> 첫 시도 또한 두 도시 간의 존중과 협력으로 이루어낸 무경계 프로젝트이지요!



다른 공연 무대와 <문화공유지대> 무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단체의 색채만을 담은 공연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과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표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공유지대> 무대는 각 도시 간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부평과 부천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 예술의 장이 되어 상징적인 페스티벌이 되길 희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팀도 부평에 관심을 가지고 부평 예술가분들과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어 기분 좋은 파도로 만들어지길 꿈꿔봅니다.

함께한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참으로 추운 겨울날, 우리는 추위를 잊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도시 간의 교류,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썸이었다면 <문화공유지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심쿵하는 순간들이 생겼고 이제 더 가까워지고 싶고 알고 가고 싶어졌잖아요. 우리 그 마음 잊지 말고 곧 만나서 또 상상하며 꿈꿨던 <문화공유지대>를 만들어 봐요! 곧 만나요!



#2

김태연, 이뿌리 〈경계를 허물다〉

사운드 아티스트 김태연
비주얼 아티스트 이뿌리



빛과 사운드로 무경계를 그려내다

허공을 가르는 손짓에 즉흥적으로 사운드가 뒤따랐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평, 부천, 문화공유지대 글씨가 화면이 천천히 그려졌다. ‘경계를 허물다’는 말 그대로 김태연과 이뿌리 아티스트가 선보인 공연은 그야말로 경계가 없었다. 오디오와 비주얼 사이의 무경계와 반경계를 지향하는 두 아티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보자.



‘경계를 허물다’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경계와 만남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서예 파트에서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마이크를 통해 각자의 삶과 예술을 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면, 사운드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진행되는 메트로놈의 움직임과 함께, 양 경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조화를 찾는 음악의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또 부천 거주한 경험이 있고, 글씨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이뿌리와 부평 사운드아티스트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김태연의 만남 자체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실시간으로 오디오와 비주얼의 협연으로 ‘두의 경계를 아우르는 조화’를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실시간으로 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즉흥 퍼포먼스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공연을 구현하셨는지 궁금해요.

말 그대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 퍼포먼스의 주된 목표였어요. 저희의 공연에는 정해진 타임라인이 없고 서로의 음악과 몸짓, 비주얼을 보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김태연 아티스트는 다양한 일상 속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를 증폭시켜서 음악을 만들었고, 이뿌리 아티스트는 카메라 라이브 피드를 재해석하는 미디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신체를 활용한 비주얼을 만들었어요.

<문화공유지대>라는 주제를 두고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연: 지역과 장르도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함께 고민하다 보니 서로의 삶에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협업했던 작업들과는 또 다른 시작점이 생겨난 느낌을 받았어요. <문화공유지대>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뿌리: 언제나 새로운 만남은 기존의 경계에 대한 질문들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비단 지자체 간의 교류이기도 하지만 예술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기존에 생각하던 편견과 경계에 대한 오해, 예술이 가진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평과 부천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문화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류 속에서 부평과 부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인 결이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공유지대> 첫 공연을 선보인 소감과 이 공연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첫 문화공유지대의 첫발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로 더욱 경계를 아우르는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와 아카이빙, 레지던시 등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공유지대>가 문화 예술가들의 생태계를 키워갈 수 있는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김태연: 2021년 재단분들과 예술가분들이 함께 문화 공유지대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심어가면서 시민과 예술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유지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뿌리: 문화공유지대라는 신선한 경험이 창작자로서도 무척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경험과 시도가 펼쳐지는 문화적 움직임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3

창작집단 유리
〈어디 있어요?〉

기획 및 연출 유리

조연출 및 음향 황다경

배우 유리, 하주원, 김나영, 이희연, 김현진

영상 이규성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편견을 마주하다

익숙한 지하철 안내 음이 들려오면서 여섯 명의 승객이 무대 위에 올라탔다. 부천역을 지나 부평구청역으로 향할수록 우리 안의 '경계의 선'이 관객 앞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야말로 <문화공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연극이었다. 담백한 대사와 등장 캐릭터들만으로 경계를 영리하게 보여주며, 두 도시 간의 편견과 시선을 화두로 던진 창작집단 유리의 연출가 유리를 만나보았다.



<문화공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부평과 부천의 속마음을 담은 극을 선보이셨어요. 연극 '어디 있어요?'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하는가?'의 원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까?'에 대해 토론과 함께 지역 자료조사 및 주변 탐방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지요. 부평과 부천의 사람들이 경험한 삶을 '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다루어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한 편의 연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닌 6명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한 명쯤 있을 것 같아서 몰입도가 더 높더라고요. 캐릭터 설정은 어디서 따오셨나요?

극의 90%가 실제예요. 물론 외국인 역은 실제로 외국인은 아니지만요.(웃음) 하지만 허구는 아닙니다.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의 이야기를 담았으니까요. 저는 부천에서 자라왔고 주원 배우는 사당동에서 살지만 부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희연 배우는 부천에서, 나영 배우와 현진 배우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직업과 나이에 대한 가상 설정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리얼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짧은 러닝타임에 한 편의 주제를 담은 연극을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선'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공연 전날까지 머리를 쥐어짜며 '이게 최선인가?'를 외쳤으니까요. 퍼포먼스의 동작은 구상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퍼포먼스 공연은 배우로 두 번 참여했었는데 연출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배우들과 매일 2시간씩 뛰고 구르며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과정이 재밌었지만 어려웠던 과정이었어요.

부평과 부천은 쌍둥이 도시처럼 이름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 먼 것 같아요. 극에 등장하는 '선' 역시 부평과 부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선'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경계에 대한 의미의 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각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름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선이라는 건 뻔뻔한 직선일 수도 있지만 완곡한 곡선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죠. 서로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겠네요.

다른 무대와 <문화공유지대> 무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기공연은 창작집단 유리의 공연이었다면, <문화공유지대>는 모두의 공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예술가의 공연을 감상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가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문화공유지대> 첫 공연을 선보인 소감과 이 공연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번 공연을 통해 저희의 존재를 알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 여기 있어요. 당신은 어디 있어요?" 하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문화공유지대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응원하며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요. 그날을 기다릴게요.

BE YO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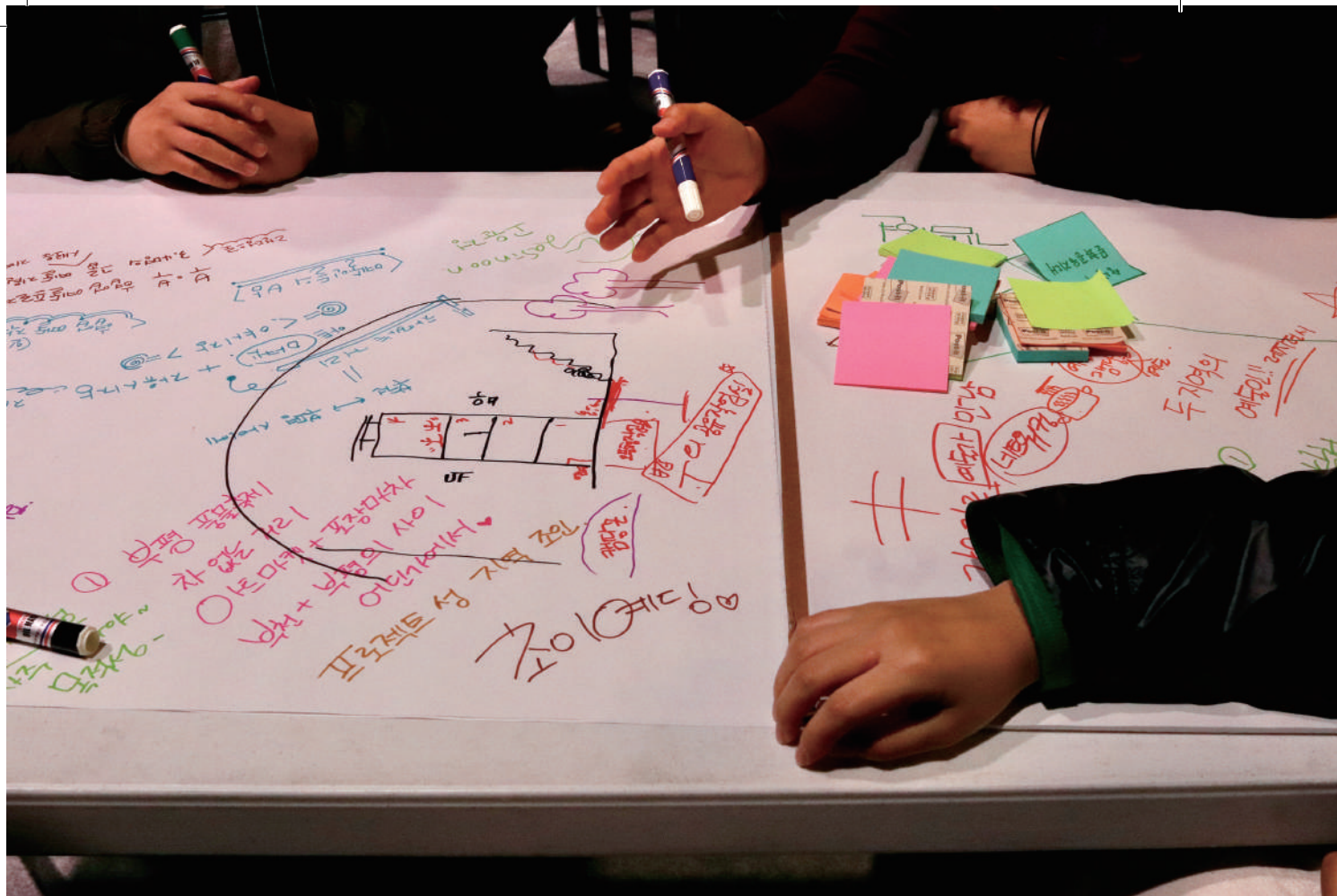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
우리만의 공유지대를 그린다

BO UN DA RY



부평과 부천의 문화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문화공유지대>

부평과 부천의 문화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문화공유지대>는 아직 발아 전 단계다. 거칠고 차가운 땅속 아래에서 어디로 뻗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펼쳐나갈지 차분하게 고민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성한 잎사귀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한 계절을 품미하는 꽃을 피워낼 수도 있다. 어떻게 틈을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들은 지금 서 있다. 지역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화공유지대>를 꿈꿔야 할까. 두 도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시민이 모여 <문화공유지대>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묻고 답했다. 누군가는 지역에서 답을 찾았고, 또 다른 이는 연대의 힘을 말했다. 열띤 토론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부평과 부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꿈꾸다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꿈꾸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멈출 줄 모르고 매년 오르는 임대료, 공연을 쉬이 올리기 힘든 공간적 여건, 예술 활동을 위한 경제 활동 등. 그래서 그런걸까. <문화공유지대>를 마음껏 상상하라는 질문을 받은 대부분 예술가와 시민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실천'을 꿈꿨다. 염원을 담아 단독 6층 예술 건물도 설계해보고,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보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페스티벌도 등장했다. 솔직한 토론 위로 즐거운 상상이 거침없이 그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문화공유지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해받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모습에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던져진 네 가지 질문

1. 우리가 꿈꾸는 문화공유지대! 상상의 나라를 펼쳐다!
2. 부평, 부천 문화공유지대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을까?
3.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전문가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 여기 모인 우리가 할 수 있거나 기여하고 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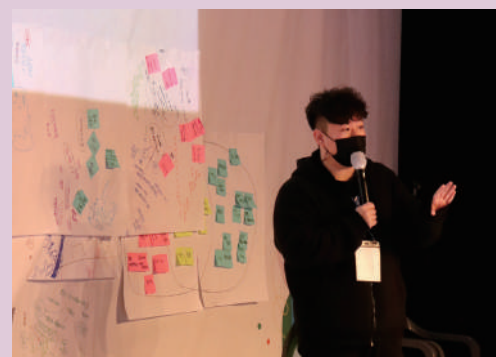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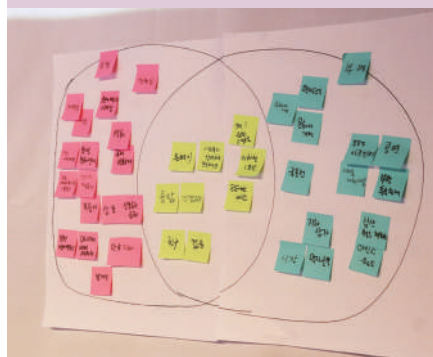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서울과 외부로 어쩔 수 없이 돌고 돌 수 밖에 없는 부평과 부천의 예술가들. 어쩌면 우리들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닐까.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고 돌아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새로운 시도와 경계 없는 확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곳,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은 곳.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곳. 열린 토론 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두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이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들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가올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이제 막 첫 발걸음을 시작한 <문화공유지대>의 씨앗은 곧 단단한 땅을 힘차게 밀치고 싹을 피워내며,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나무로 거듭날 것이다. 아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목격한 두 도시의 예술가와 시민의 뜨거운 마음과 애정 어린 시선이 계속된다면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어버린 <문화공유지대>. 그다음을 기대하며, 함께 만들었던 첫 번째 페이지를 닫는다.

취재 및 글 김한솔이



1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유
상상의 즐거움
예술은 예술적이라서
즐거워서
몰입할 때의 짜릿함
내가 느끼는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기 때문
숙명!!
행복해서 입니다
늘 새롭고 즐겁다
나와 팀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를 찾기위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이라 부르기에

2 창의성 개성 자유 자신 돈
세상 소신 믿음 느낌 관찰
해석 표현 **세상에** 사람 문
제의식 정직함 감정 관계성 창의력
몰입 긴장감 **존재하는** 열려있는 마
음 이해 의미 예술을 하게 한 모든
것 **예술이** 예술을 하는 모든 것 예
술을 보는 모든 것 **모두** 예술가 관
객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공유
사회 **다른 이유** 불안 현실 상상 사
람 창의성 차별성 완성도 자율성
창의성 근면함 정체성 스토리 공감
삶 창작 소통 사랑 기록 의지 세계

예술가 N문N답

예술을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무엇인가요?

문화공유지대 참여 예술가에게 묻다

3

지역 예술가로 살아가다는 것은

예술가 N문답

문화공유지대 참여 예술가에게 묻다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삶보단 다양한 경험을 향해 상상하고 설
레는 것! / 즐겁다. / 상상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있는 건물이 가득한 도시
/ 보다 복합적인 문화생태 위의 플레이어 /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있어
서 자랑스럽다. / 마이 라이프 / 자랑스러운 일 / 조금 외롭지만, 그만큼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우리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 / 행복하다. / 지역 예술가로 살아가다는 것은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생각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예술 프로그램도 만
들고 그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시키려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
는 가교 역할이 되기 위해 늘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 많은
예술가들이 공존하고 우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앞으로
가 기대된다. / 성장하는 부천/부평은 우리 같은 예술가에게 성장의 기회
를 주어 같이 커가는 느낌이 들어 작업을 할 때면 항상 기쁘다. / 문화의
중심 서울의 자극을 받으며 한편으로 지역성을 잃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지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인 색채를 잃을 수 있으니 항상 자극에 반
응하며 감각적으로 지내려 합니다. 힘들어요. / 부평에 죽 살아왔던 사람
으로서 많은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00억으로 문화공유지대를 만들 수 있다면?



다양한 예술가들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예술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학교마다 댄스수업을 체계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공연장, 문화센터와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짓고 싶어요.

**작업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만들고 싶어요.**
보물찾기를 합니다.

**24시간 내내 문화를 느낄 수 있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어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예술촌을 건립 하고 싶어요.

인천 부천의 대학로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예술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고민하고 상상하고 공유하고 사람들과 함께
미래에 사람들에게 남겨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의 작품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평과 부천 지역의 예술가를 전국 그리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문화공유지대 집장촌을 만들어 공유지대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에게
각자의 예술 활동을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 하나씩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누구나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극장과 연습실이 있고
예술가 전문 인력 교육과 지원이 가능한 곳을 꿈꿔요.**

건물을 짓고 예술가들을 모아 이어 주고 싶어요.

**집과 예술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가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Self Interview

문혜진(THE MOON)

그날의 나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댄서



#THEMOON #WAACKING #DANCE

Q: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하루종일 나를 의심하기 않고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춤을 추었을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해요.”

최예지(거문고자리)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연주자



#국악 #거문고 #꽃

Q: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예술을 먹고 살려고 산다.”

최윤서(Team13)

무엇인가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MAKE #CRAFT #CREATIVE

Q: 문화공유지대 추천 컬러는?

“은은한 파란색!
문화공유지대는 하늘과 바다같이
넓고 푸르니까.”

허이나

여행을 통해 지역의 스토리와
자연을 빛으로 연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여행 #자연 #빛

Q: 문화공유지대를 만든다면?

“작업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만들고 싶어요.”

이뿌리

글씨를 씁니다



#뿌리 #영상서에 #초원

Q:뿌리라는 이름은 본명인가요?

“아닙니다.”

스펠라 (spella)

한 치의 오차 없는
칼각 댄스를 추는 댄서



#차분한 #인간각도기 #텃팅여신

Q:내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준완(Team13)

그래픽에서 오브제까지 재미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웍 #실행

Q: 문화공유지대 추천 컬러는?

“고채도의 오렌지 컬러
크리에이티브를 생동감있고
밝은 이미지로 담아낼 수 있으니까.”

유리(창작집단유리)

열정이 넘치는 연극 전도사



#유리 #예술 #부천의 딸

Q: 부평과 부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김은선(거문고자리)

끊임없이 도전하며 감동과
울림을 주는 탐구하는 예술가



#독창성 #긍정 #몰입

Q: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모든 사물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센스! 이 센스가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히힛!”

하주원(조충범)

사람이 좋아서 연기를 합니다.



#연극인 #아기아빠 #긍정

Q: <문화공유지대> 추천 컬러는?

“블루. 넓은 바다와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뜻.”

김태연

진동을 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소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파란색 #소리 #인천

Q: 내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늘 새롭고 즐겁다.”

황다경

나는 아직 날 알아가는 중



#엉뚱 #집순이 #ISFJ

Q: 문화공유지대 추천 컬러는?

“파랑색과 빨간색이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이현(이희연)

새로운 콘텐츠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도전가 #작연출 #반전매력

Q: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연기로 예술을 시작했지만
예술엔 선이 없다고 느껴져요.
글을 쓰고 극을 만들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가르치고 연기를 하고 싶어요.”

김현진

연기하는 김현진



#남자 #배우 #연기

Q:당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속눈썹?!”

김나영

사람을 공부하고
좋아하는 나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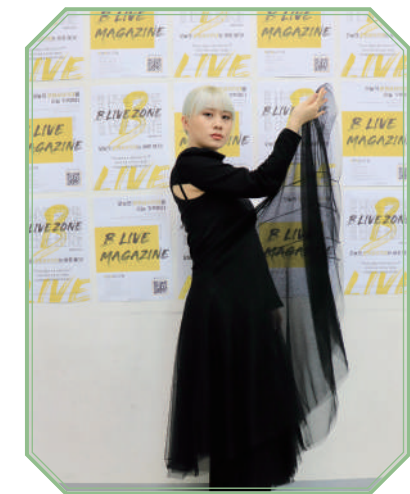
#배우 #젤리 #20대

Q: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3대 요소는?

“예술을 하게 한 모든 것,
예술을 하는 모든 것,
예술을 보는 모든 것.”

이다정 (Hwaga)

답이 없다는 답을 믿으면서
예술의 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HWAGA #CHOREOGRAPHY #즉흥

Q: 문화공유지대 추천 컬러는?

“다양성의 존중, 서로 다름의 인정,
서로 간의 화합을 담은 무지개.”

B LIVE MAGAZINE

부평 · 부천 문화공유지대 프로젝트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행일

2022년 1월 26일

공동 기획

문화공유지대 프로젝트 총괄기획자

최정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미숙, 문경선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김기석, 박호빈, 민지애

Publisher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인스타그램 @writing_day_

문의 two_hs@naver.com

Editor

김한솔이

Designer

김효섭

Photographer

박은지